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12 Vol. 210
December 2017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12 Vol. 210
2017 / December

Special Performance

- 04 | 기획공연 I
뮤지컬 <레베카>
- 06 | 기획공연 II
나윤선콘서트
- 08 | 문화콘텐츠
연극 <리어왕>



Art Class

- 10 | 명사특강
만나고 싶은 사람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7년 12월호 / 통권 210호

발행처_ 울산문화예술회관 /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달동)
홈페이지 <http://ucac.ulsan.go.kr>

발행인_ 진부호 울산문화예술회관장

기획·편집_ 홍보마케팅팀 (T. 052-226-8241~3)

디자인·제작_ 디자인 스토리

Contents

Art & Performance

- 12 | 울산시립교향악단
2017 송년음악회
- 14 | 울산·포항·경주 해오름동맹 합동공연
라 트라비아타
- 16 |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17 송년음악회
- 17 |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2017 송년음악회



Art & Story

- 18 | 이탈리아 통신
피사&시에나
- 21 | 예술을 말하다 I
조아키노 로시니9
- 24 | 예술을 말하다 II
예수 탄생의 다양한 이야기
- 27 | 예술을 말하다 III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 31 | 김용진의 Piano Forte
음악의 아버지 vs 음악의 어머니
- 34 | 뮤지컬처럼 사는 인생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Information

- 37 | 12월 공연·전시가이드
- 41 | 12월 공연·전시일정
- 43 | 화관 이모저모
- 44 | 울산지역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정보
- 46 |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혜택
- 47 | 울산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 가입안내

| Special Performance | 기획공연 I



DAS MUSICAL
레베카

A MUSICAL BY MICHAEL KUNZE & SYLVESTER LEVAY
DIRECTED BY ROBERT THAMMONGKOL

12.8.(금) ~ 10.(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공연시간 | 2017년 12월 08일(금) ~ 10일(일) (3일 4회) | **금요일 : 오후 7시 30분 / 토요일 : 오후 3시, 오후 7시 / 일요일 : 오후 3시**

4 | 공연장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티켓가격 | VIP석 14만원 / R석 12만원 / S석 9만원 / A석 7만원 | 관람등급 | 만 7세 이상 | 관람시간 | 165분(인터미션 : 15분 포함)

REBECCA

DAR MUSICAL

전 세계 160만 관객이 열광한 그 이름 '레베카' 멈추지 않는 흥행 열풍!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 메트로

신선함 그 이상의 매력이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 - 티브이데일리

팽팽한 긴장감, 아름다운 무대와 노래,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관객들을 '또다시' 사로잡았다 - 연합뉴스

피도 비명도 기괴한 공포의 대상도 없다.

'실체 없는 존재'는 이름만으로 모든 장치를 압도하며 관객의 긴장을 요리한다 - 서울경제

CAST & CHARACTER

"그녀는 우리 모두를 완벽히 속였어"

막심 드 윈터 MAXIM de WINTER



민영기

정성화

"이 집안의 모든 것은 그녀의 것"

덴버스 부인 Mrs. Danvers



신영숙

옥주현



송창익

"미세스 드 윈터는 나의"

'나'



김금나

이지혜

SYNOPSIS

불의의 사고로 아내 레베카를 잃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막심 드 윈터, 그는 몬테카를로 여행 중 우연히 '나'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막심의 저택인 맨덜리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 제 작 : (주)EMK뮤지컬컴퍼니
- 주 최 : 울산광역시, (주) 밝은누리
- 주 관 : 울산광역시, (주)공연마루
- 예 매 : 인터파크, 누리티켓, 클립서비스, 울산문화예술회관
- 문 의 : 1544-1555 / 1566-9621



나윤선 콘서트

2017.
12. 22. Fri
PM 8

울산문화
예술회관
대공연장

Yoonsun
Nah
Concert

티켓가격

VIP석 6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주최
울산광역시

주관
울산문화예술회관

관람연령 8세이상

관람시간 80분

예매 및 문의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
<http://ucac.ulsan.go.kr>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12월, 세계가 사랑한 목소리의 그녀가 온다!

2017 연말특별 공연 나윤선 JAZZ콘서트

이전에 볼 수 없던 전혀 새로운 나윤선을 만나다!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수로 인정받고 있는 나윤선이
4년만에 발표한 새 음반 레퍼토리, 새로운 연주자들과 함께
더욱 완벽해진 무대와 감동으로 한국팬들을 찾는다.

2017년 5월, 무려 4년 만에 발표하는 아홉 번째 앨범 〈She Moves On〉으로 돌아온 나윤선은, 앨범 발매와 동시에 독일 아마존, 아이튠즈 등 온라인 음반판매 사이트에서 재즈차트 1위에 올랐으며, 국내 음원 사이트에서도 곧바로 재즈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영국의 런던 선데이 타임즈는 “무엇이든 예술적인 노래로 바꿔버리는 그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라며 극찬했고, 그 밖에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유럽 각국의 언론들이 나윤선과 그의 이번 새 앨범에 대한 호평을 담은 기사들을 일제히 전하고 있다. 나윤선은 이번 투어에서 노라존스의 드럼 연주자였던 댄 리서(Dan Rieser), 뉴욕 음악씬 최고의 베이스 세션인 브레드 존스(Brad Jones) 등 음반에 참여했던 미국 연주자들은 물론 앨범과 공연에서 오랜 기간 함께했던 독일 출신의 피아니스트 프랭크 वो스테(Frank Woeste)의 참여로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십여 년간 음반과 공연에서 좀처럼 사용하지 않았던 드럼과 다양한 빈티지 건반들이 사용되며, 지미 헨드릭스의 'Drifring', 폴 사이먼의 'She Moves On', 조니미첼의 'The Dawntreader', 루 리드의 'Teach The Gifted Children' 등 다양한 장르의 숨겨진 명곡과 나윤선이 직접 작곡한 'Traveller', 'Evening Star' 등 새 음반 〈She Moves On〉에 수록된 곡들이 국내 무대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4년 만에 발표한 새로운 레퍼토리와 함께 새로운 연주자들로 구성된 이번 투어는 이전에 볼 수 없던 전혀 새로운 나윤선을 만날 수 있는 올 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출 연

vocal

나윤선 Youn Sun Nah

piano, keyboards

프랭크 वो스테 Frank Woeste

acoustic bass

브레드 존스 Brad Jones

drums

댄 리서 Dan Rieser

Guitar (acoustic, electric)

토멕 미에르노스키 Tomek Miernowski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Who is it that can tell me who i am?



원작_ 윌리엄셰익스피어
번역_ 김석만
예술감독/연출_ 박용하

KING LEAR 리어왕

2017. 12. 7.(목) 오후7시30분 | 8.(금) 오후4시, 오후7시30분 | 9.(토) 오후4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전석 10,000원 •예매 및 문의 | 275-9623~8, <http://ucac.ulsan.go.kr> •주최 |  울산광역시 •주관 |  울산문화예술회관

리어왕 보다 더 훌륭한 비극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어왕은 수백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서도 가장 숭고하고 아름답게 인생의 고통을 잘 성찰하고 그려놓은 독보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요소가 비극으로 시작하고 비극으로 마치는 작품으로 인간의 추악한 오만과 위선 그리고 욕심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과 슬픔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놓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King Lear (리어왕)

발표년도 1608년, 5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1605년에 쓴 것으로 추정되며 1608년 간행되었다. 《맥베스》 《햄릿》 《오셀로》와 함께 4대 비극이라 불린다. 리어왕은 영국의 전설적인 국왕으로 16세기의 영국문학에서도 가끔 등장하는데, 셰익스피어는 그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다루었다. 늙은 왕 리어와 그의 세 딸을 둘러싼 이야기는 배운(背恩)을 주제로 하며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비극을 보여준다. 리어왕에게는 고네릴·리건·코델리아라는 3명의 딸이 있었는데, 리어왕이 너무 늙어 딸들에게 국토를 나누어 주기로 결정하고 딸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물어본다. 고네릴과 리건은 그들의 사랑을 과장하여 표현하였으나 성실한 코델리아는 자식으로서 효성(孝誠)을 다할 뿐이라고 덤덤하게 대답하였다. 이에 노한 국왕은 코델리아를 추방하고 국토를 두 딸에게만 나누어 준다.

그러나 국토를 물려 받은 두 딸의 냉대(冷待)를 참지 못한 리어왕은 충신 켄트와 아릿광대를 데리고 궁전을 나와 폭풍우가 몰아치는 황야를 헤매면서 불효한 두 딸을 저주하며 광란(狂亂)한다. 이윽고 리어왕은 왕도 한 인간에 불과하며, 인간은 한낱 동물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다. 프랑스의 왕비가 된 코델리아는 부왕(父王)의 참상을 전해 듣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진격하였으나 싸움에 지고, 아버지와 함께 포로가 되어 병사의 손에 교살된다. 리어왕은 죽은 딸의 시체를 안고 슬픔에 못이겨 절명한다. 나머지 두 딸 고네릴과 리건은 불륜을 저질러 파탄에 이르고, 고네릴의 남편 알바니 공작이 왕위에 오른다.

제작진	출연진						
		김명길	최주현	박은혜	강현석	박은성	김승준
김석민 비서(비서) 역							
		현우연	강혜연	박은혜	박은성	박은성	김승준
							
박은혜 비서(비서) 역		박은혜	서지후	조유진	박은성	박은성	김승준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의 문화예술교육,
울산문화예술회관 아트 클래스 명사특강

「만나고 싶은 사람」



기업인 김미경



음악평론가 임진모

문화예술회관에서 2017년을 마무리하며 준비한 선물!

오는 12월, 문화예술회관 아트 클래스는 2017년을 마무리하며 시민들이 가장 보고 싶은 문화예술계의 명사를 초청한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주제로 올 한해를 되돌아보며 점검하며 새로운 2018년에 대한 다짐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이번 명사특강은 <김미경의 인생미답>, <엄마의 자존감 공부>의 저서인 김미경(기업인), MBC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 <팝, 경제를 말하다>의 임진모(음악평론가)와 함께한다.

먼저, 22일(금) 오후 2시에는 스타강사 김미경(기업인)과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로 꿈과 일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던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고 달라지는 현실에서 자신의 꿈을 잊지 않고 지켜가는 방법, 꿈이 바로 자신의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눠볼 예정이다.

삶에서 주어진 다양한 자신의 역할과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며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꿈을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는 데 필요한 해법을 유쾌하게 풀어낼 것이다.

그리고 대중음악평론가, 팝 칼럼니스트로 잘 알려진 임진모가 '음악을 말하다'의 주제로 강연한다. 각종 음악관련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그는 23일(토) 오후 2시에 만날 수 있다.

강연 내용으로는 60년대 미8군과 변안가요에서부터 70년대 대마초파동, 80년대 팝을 이겨낸 가요, 그리고 90년대 우리 음악의 혁명과 현재 케이팝에 이르기까지를 살피며 가수들의 인생과 음악철학을 만나볼 수 있다.

이렇게 연말을 맞아 문화예술과 삶을 전문가와 함께 바라보고 소통하며 보다 따뜻한 여운이 남는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만나고 싶은 사람'의 신청방법은 12월 14일(목)까지 선착순으로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을 통해 가능하며, 교육 참가비는 무료이다.

모집개요

- 교육명 : 아트 클래스 명사특강「만나고 싶은 사람」
- 교육기간 : 2017. 12. 22(금)~12. 23(토), 2일간
- 시간 : 14:00 ~ 15:30
- 교육과정 : 총 2과목, 160명
- 장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2층 회의실
- 대상 : 울산시민 총 160명(회당 80명×2회)
- 수강료 : 무료

일자	과목명	강사	주요경력
12.22(금)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김미경	· 기업인, 「김미경의 인생미답」외 · 아트스피치엔커뮤니케이션 대표 · 제5회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상
12.23(토)	음악을 말하다	임진모	· 음악평론가, 「팝, 경제를 노래하다」외 · 음악웹진 IZM 대표 · MBC 연기대상 라디오부문 공로상



2017 울산시립교향악단 송년음악회

지휘 송 유 진 | 피아노 피터 오브차로프

2017. 12.21(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모차르트: 클라리넷 5중주곡 | 오베라 『집사냥학』 서곡, 제1막 • 로시니: 기원 | 캄소데 인 클루

류의 Intermission

• 프란츠 리스트: 교향시 제3번 『전주곡』 • 라벨: 볼레로

티켓가격: **B**석 1만5천원, **S**석 1만원, **A**석 7천원 * 후원: 회원 30% 할인 | 단체 10만 이상 20% 할인 | 학생·요청·교 50% 할인

공연문의: <http://ucac.ulsan.go.kr> T. 275-9623~8

주최: 울산광역시 주관: 울산시립예술단

2017년이 저물어 갑니다. 새로운 소망과 열정 넘치는 계획으로 한해를 시작한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2018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담아 울산시립교향악단이 「2017 송년음악회」를 선사합니다. 송유진의 지휘와 유럽과 아시아에서 솔리스트 및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피터 오브차로프가 협연합니다. 서정적인 멜로디와 재즈풍이 가미된 조지 거쉰의 '랩소디 인 블루', 리스트의 '교향시' 전주곡, 라벨의 '볼레로' 등 부담 없이 즐기는 수준 높은 연주회가 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휘자 송유진 (Conductor Eugene Song)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음악원 학부 및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 'Peter Great' 국제 지휘학교 1위, Wiener musik seminar 지휘 부문 1위.
-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카메라타 필하모니 말리홀 데뷔
- 2009 ~ 2011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음악감독 및 지휘자 역임.
- 2009 ~ 2012 중앙대, 서경 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 현) 울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



피아니스트 피터 오브차로프 (Pianist Peter Ovtcharov)

- 상트페테르부르크 영재 아카데미 수학
- 독일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졸업
-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국제 블라디미르 크라이네프 콩쿠르 2위, 오스트리아 콩쿠르 1위
- 제3회 국제 영 차이콥스키 콩쿠르 2위, 비엔나 국제 베토벤 콩쿠르 3위 등 다수 입상
-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부르크너 오케스트라 등 다수 연주
- 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Program

- ▶ 요한 슈트라우스 / 집시남작
Johann Strauss / Der Zigeunerbaron
- ▶ 거쉰 / 랩소디 인 블루 (피아노 피터 오브차로프)
Gershwin / Rhapsody in Blue
- INTERMISSION (휴식)
- ▶ 리스트 / 교향시 제3번 '전주곡'
Liszt / symphonic poem No.3 'Les préludes'
- ▶ 라벨 / 볼레로
Ravel / Bolero

INFORMATION

- 공연시간_ 90분(인터미션 포함)
- 티켓_ R석/1만5천원 S석/1만원 A석/7천원
- 할인_ 회원30%, 단체10인이상 20%, 학생(초,중,고)50% 할인
- 공연문의_ Tel. 275-9623~8 <http://ucac.ulsan.go.kr>
- 주최_ 울산광역시
-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 본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한 공연입니다.

G. Verdi

LA TRAVIATA

라 트라비아타

2017. 12.01.(금) 오후 8: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17. 12.08.(금) 오후 7:30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17. 12.15.(금) 오후 7:30
경주 예술의전당 함월홀



주역_곽길균



지휘_민안기

출연_울산시립예술단, 포항시립예술단, 경주시립예술단
티켓_R석1만원, S석7천원, A석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학생 50% 할인 등)

주최_울산문화재단, 포항문화재단, 경주문화재단

주관_울산시립예술단, 포항시립예술단, 경주시립예술단

* 본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이 가능한 공연입니다.

LA TRAVIATA

가장 뜨거운 삶을 살았던 비련의 여인을 만나다.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울산, 포항, 경주 시립예술단이 선사하는 그 웅장한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SYNOPSIS

비올레타의 집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다. 가스통 자작이 그녀에게 친구 알프레도를 소개시켜 주자 알프레도는 오래 전부터 그녀를 흠모해왔다고 그녀를 유혹한다. 알프레도가 비올레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비올레타는 알프레도에게 동백꽃을 선물로 건네며 그 꽃이 시들면 다시 만나러 오라고 한다. 알프레도의 아버지 제르몽이 사교계 여성 비올레타를 찾아와 아들과 이별

하기를 강요한다. 비올레타는 눈물을 감추며 사랑하는 연인 알프레도 곁을 떠나가고... 어느날 우연히 그녀를 만난 알프레도는 감정이 격해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녀를 모욕한다. 아버지 제르몽은 비올레타가 떠난 건 자신 때문이었다며 아들에게 사실을 밝힌다. 알프레도는 그녀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지만 이미 병든 비올레타는 죽어간다.

Creative Team



연출 정갑균



지휘 민인기

CAST



비올레타 김성아



알프레도 김정권



제르몽 최판수



플로라 정지윤

Information

- 일 시 : 2017. 12. 01.(금) 오후 8시
- 장 소 : 대공연장
- 연 출 : 정갑균
- 지 휘 : 민인기
- 합 창 : 울산시립합창단
- 출 연 : 울산시립예술단, 포항시립예술단, 경주시립예술단
- 티 켓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학생 50% 할인 등)
- 관람등급 : 초등학교 이상 입장가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36회 정기연주

따뜻한 감동이 있는 "선물"같은 음악회

2017 송년음악회



2017. 12. 16.(토)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지휘 송유진

프로그램 ■ E. B. Britten / Simple Symphony for String Orchestra (심플심포니)
■ P. I. Tchaikovsky / Swan Lake Suite op.20 (백조의 호수 모음곡 中 제1,3,5,6곡)

- 입장료 | 전석 천원 • 입장등급 | 5세 이상 입장가능
- 예매 및 문의 | 275-9623~8, <http://ucac.ulsan.go.kr>
- 주최 |  울산광역시 • 주관 |  울산문화예술회관





해를 거듭할수록 성숙해진 음악을 선보이는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이
한해를 마무리 하며 준비한 2017 송년음악회가 12월23일(토) 소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청아하고 풍성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화합의 메시지를 감상하세요!



지휘 한성용



빈주 김나리



출연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2017. 12. 23.(토)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입장료 | 전석 천원 • 관람등급 | 5세 이상 입장가

Italia 통신

피사 & 시에나

피사의 사탑(Torre di Pisa)은 이탈리아 서부 토스카나 주의 피사에 있는 피사 대성당의 종루이다. 피사의 사탑은 수 백 년 동안 기울어진 상태로 유지되어 유명해졌으며 이 사탑을 보기위해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들어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다. 광장에는 쓰러져 가는 사탑을 손으로 밀면서 받치고 있는 모습을 사진 속에 담아두려는 관광객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탑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55m, 계단은 297개로 이루어졌으며, 무게는 14,453톤이다.

현재의 기울기의 각도는 약 5.5도이고 기울기의 진행은 여러 차례의 보수공사로 멈추었다.

탑이 기울어진 원인은 밝혀졌지만 지금도 중세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리고 있다. 1173년 8월 9일 착공 시에는 수직으로 완성되었지만, 13세기에 들어 탑의 기울어짐이 발견 되었다. 공사 시작부터 보수까지 830년에 가까운 세월이 걸렸는데 이 기울기의 원인은 지반 토질이 불균형하기 때문으로 남쪽의 토질이 상대적으로 부드러워 시간이 지나면서 기울기가 시작 되어 탑의 남쪽이 크게 내려가게 되었다.



Formaggi Misti





Pisa

1990년 1월 7일에 안전상의 문제로 관광객에게 공개가 금지되었다가 2001년 6월 16일 공사를 완료하여 10여년 만에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었다. 더 이상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를 하여 이제는 공사가 마무리 되었는데 웃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기울어진 탑으로 유명한 이 사탑을 이제는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사탑이 자체적으로 균형을 잡기 시작하여 이론상으로는 완전히 바로 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00년에서 300년간은 계속 기울어져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일부러 기울일 수 없는 일이니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할 일인 것이다. 사탑 내부관광은 안전상의 이유로 한 번에 한정된 수의 인원만 입장할 수 있으므로 예약을 미리 하는 것이 좋다. 또한 8세 미만의 어린이는 입장이 불가하고, 12세 미만 어린이는 꼭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

사실 이 사탑보다는 몇 배 더 아름다운 피사의 대성당(Duomo di Pisa)이 옆에 자리하고 있다. 대부분 관광객들은 사탑에만 정신을 빼앗겨 사진을 찍느라 시간을 보내는데 피사의 두오모 대성당을 더 깊이 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건축가 부스케토(Buscheto)에 의해 1063년 착공하기 시작하여 1092년에 완공, 1118년에 헌당되었다.

위에서 바라보면 라틴 십자가의 형태를 한 이 대성당은 길이 95m, 폭 32m에 이르는 피사 로마네스크 양식의 최고 걸작으로 불리고 있다. 내부는 68개의 원주가 촘촘히 세워져 있고 5개 회랑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원주의 상당수는 팔레르모의 고대 유적으로부터 전리품으로 옮겨진 것인데 내부 장식에는 비잔틴 양식의 영향이나 이슬람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양식이 융합되어 있다.

성당 내부의 설교단은 1302년부터 11년에 걸쳐 만들어졌는데

이탈리아 고딕 조각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조반니 피자노(Giovanni Pisano)에 의해 완성되었다. 설교단의 장식은 구약성서의 여러 장면과 신약성서의 최후의 심판 장면을 새겨 놓았다. 중앙의 기둥에는 신앙, 희망, 자애를 나타내는 의인상이 조각되어 있다.

피사 대성당 건물 중 가장 마지막으로 13세기에 지어진 전면부는 로마네스크양식(둥글게 타원형으로 지은 것)이 아닌 고딕양식(가운데가 뾰족하게 지은 것)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 3개의 청동으로 만들어진 출입문이 있고, 그 위로 4층은 아치와 많은 기둥으로 장식된 개방된 형태의 회랑이 있다. 이 전면부의 건축양식이 바로 피사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며 루카(Lucca)와 피스토이아(Pistoia)의 성당에서도 같은 양식을 나타낸다.

또한 부속 건물로는 거대한 돔을 두고 있는 원통형의 건물로 내부의 공명효과로 소리의 울림이 크고 웅장한 것으로 유명한 세레당(Batistery)과 회랑식의 묘지인 캄포산토(Campo Santo), 종탑이 있다.

사실 피사에는 구경거리가 그리 많지는 않다. 대부분 여행객들은 주변 도시를 돌면서 피사에 잠깐 들러 구경하는 정도인데 차로 두시간정도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시에나(Siena)라는 도시가 나온다.





시에나 역사 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피렌체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 큰 건물을 못 짓도록 억압받은 역사 때문에 중세 자치 도시 그대로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 잘 보존된 중세의 건물들은 지금도 상점으로, 집으로, 식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에나는 중세풍의 갈색 건물들이 토스카나 특유의 평화로움과 어울려 따뜻함과 포근함을 주는 도시이다. 시에나는 레무스의 아들이자 로물루스의 조카인 세니우스와 아스키우스가 세웠다고 전해진다. 아마 그들의 아버지가 로물루스에게 살해당하고 로마에서 도망쳐 나올 때 젓먹이는 암늑대상(카피톨리나 늑대상)을 가져왔는데, 이 석상은 시에나의 상징물이 되었다.

시에나의 중심가 시청이 있는 캄포 광장(Piazza del campo)은 1293년부터 1349년에 걸쳐 건설 된 것으로 이태리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으로 손꼽힌다. 햇빛 좋은 날이면 책을 읽는 사람, 낚시를 즐기는 사람,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 사랑하는 연인들과 데이트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평온함과 활기가 넘친다.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진 독특한 조개모양의 광장은 9개의 바다으로 나뉘는데, 숫자 9는 9개의 정부(Governo dei Nove, 1292-1355)를 상징한다.

특히 이 광장은 14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팔리오(Palio)라는 전통 경마 경기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한테, 시에나의 팔리오는 7월 2일과 8월 16일, 캄포 광장에서 1년에 두 차례 열린다. 이 행사에는 많은 관중들이 보러 오는데 유럽인들은 티켓을 6개월 전부터 구매하기 시작하며, TV 생중계도 이뤄진다. 매년 17개의 콘트라테(본래 도시의 수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도시 지역 대대)의 대표 말기수가 각 콘트라테의 상징과 깃발을 달고 우승 트로피를 향해 경주를 한다.

또한 캄포 광장과 함께 아름다운 시에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만자의 탑(Torre del Mangia)이 푸블리코 궁전 앞에 세워져 있다. 만자의 종탑은 종지기가 게으르고 돈이 있으면 다 쓴다고 하여 만자과다니(Mangiaguadani)라 불렀던 것에서 따왔다고 한다. 꼭대기까지 오르려면 505개의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데 이곳은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인원수를 25명씩 제한하고 있으며 계단이 좁기 때문에 가방은 띠에 보관하고 올라가야 한다. 정상에 오르면 시에나 도시가 한 눈에 들어오고 중앙에 우뚝 서있는 하얀색과 검은색의 대리석이 가로 줄무늬로 장식된 시에나 두오모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시에나 두오모는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이 합쳐져 지어진 성당으로 정식 이름은 승천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cattedrale metropolitana di Santa Maria Assunta)으로 불린다. 1348년 페스트가 이 도시를 흔들지 않았다면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성당이 될 뻔했던 성당이다.

성당의 내부는 시에나의 상징인 하얀색과 검은색 대리석으로 장식한 기둥과 모자이크 장식으로 꾸민 바닥이 특징이다. 성당에 들어서면 많은 조각상과 그림이 있는데 대부분 복사본으로 원본은 두오모 박물관과 지하 묘지 등에 보관되어 있다. 또한 내부에는 피콜로미니 도서관(Libreria Piccolomini)이 있는데 핀투리키오(Pinturicchio)의 벽화, 고대조각 <삼미신(Le Tre grazie)>, 미켈란젤로의 20세 때 작품인 피콜로미니의 제단 등이 있다.

토스카나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피사와 시에나의 방문은 유명한 관광지 이상으로 이탈리아 중세도시의 매력에 흠뻑 빠져 들게 한다.

글 김진홍



토르발도와 도르리스카 (사진출처: wordpress.com)

조아키노 로시니 9

‘토르발도와 도르리스카 Torvaldo e Dorliska’

로시니는 1815년 10월 나폴리에서 오페라 ‘엘리사베타, 영국여왕’을 성공리에 초연한 후 11월 로마로 간다. 로시니의 다음 오페라 ‘토르발도와 도르리스카’가 그 해 12월 26일 로마 테아트르 발레(Teatro Valle)에서 초연되었다. 대부분은 프랑스의 극작가, 정치가, 외교관이며 혁명주의자인 장 바티스트 루베 드 쿠브레의 소설 ‘파우블라스 기사의 연애담들’을 원작으로 체사레 스테르비니가 집필했다.

쿠브레의 이 소설은 작곡가 루이지 케루비니의 오페라 ‘로도이스카 Lodoiska’(1791)의 원작이기도 하다. 서정비극에 희극적 요소를 갖춘 세미세리오 오페라 ‘토르발도와 도르리스카’는 난관을 겪다가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른바 ‘구원오페라’(Rescue opera)에 해당한다. 간단 줄거리를 살펴보면 토르발도는 도르리스카의 남편이다.

토르발도는 도르리스카에게 영감한 마음을 품고 호시탐탐 노리는 오르도브 공작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는다. 공작성의 수비대장 조르지오는 포악한 공작을 축출코자 하며 토르발도와 도르리스카를 도와 준다. 조르지오의 여동생 칼로타도 도르리스카를 도와준다. 오르도브는 공작의 신하이지만 나중에는 조르지오와 함께 공작을 축출하는데 큰 힘이 된다. 초연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고 실패했다.



조아키노 로시니



토르발도와 도리스카 (사진출처: 로시니 페스티벌)

토르발도와 도리스카 (사진출처: 로시니 페스티벌)

‘세빌리아의 이발사 Il barbiere di Siviglia’ (I)

로시니가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초연시 제목: ‘알마비바 또는 쓸데없는 걱정’)를 작곡할 당시에 선배 작곡가 조반니 파이지엘로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가 30년 넘게 인기를 끌던 상황이었다. 로시니의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오페라의 원작과 파이지엘로의 오페라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살펴보자.

원작 ‘세빌리아의 이발사’와 작가 보마르셰

피에르 오귀스탱 카롱 드 보마르셰(Pierre Augustin Caron de Beaumarchais 1732~1799)하면 ‘세빌리아의 이발사’와 ‘피가로의 결혼’ 원작자로서 오페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들어본 이름이다. 보마르셰는 발명가, 음악가, 정치가, 작가, 무기상, 출판인, 혁명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특이한 인물이었다. 작가로서 보마르셰는 5막의 연극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1775년 2월 파리 코메디 프랑세스 b 극장의 무대에 올렸다. 이 연극은 3부작(Trilogy) 중 1부에 해당한다. 초연의 평은 영 좋지 않았다.

타고난 흥행 감각을 갖춘 보마르셰는 이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고는 급히 원고를 거둬들여서 사흘 만에 5막에서 4막으로 줄여 다시 연극 ‘세비야의 이발사’를 공연하여 대 성공을 거두었다. 보마르셰는 “금요일 밤에 사라질 뻔했던 불쌍한 피가로가 일요일에 부활했다”라고 술회하고 있다.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파리 시민들로부터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다. 당시는 프랑스 혁명(1789년)의 기운이 서서히 피어 오르던 시기여서 이 작품은 파리 시민들에게 자유와 평등이라는 혁명의 사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연극의 주인공인 피가로는 허찮은 이발사이지만 그에게 이발을 하려면 아무리 돈 많고 지체 높은 귀족이라고 해도 모자를 벗고 가운을 입고 이발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귀족들이 권력을 쥐고 제멋대로 횡포를 부리는 그런 시대에 억압받고 작취당하는 서민들의 눈에는 이발사의 역할이 더 할 수 없이 유쾌하게 보였고 평등사상이 고취되기 시작했다. 보마르셰는 1785년 2부 ‘피가로의 결혼 Le nozze di Figaro’, 1792년 3부 ‘죄 많은 어머니 La mere coupable’를 완성했다.

보마르셰 3부작, 오페라로 재탄생

‘세빌리아의 이발사’의 소설과 연극이 인기를 끌자 제일 먼저 오페라로 만든 작곡가는 1782년 조반니 파이지엘로(Giovanni Paisiello 1740~1816)이다. 2부 ‘피가로의 결혼’은 1786년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가 오페라로 작곡하였다. 1796년 프랑스 작곡가 니콜라스 이수아르(Nicholas Isouard)도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오페라로 작곡했지만 그의 작품은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3부 ‘죄 많은 어머니’(La mere coupable)는 1966년 프랑스 작곡가 다리우스 미요가 오페라로 작곡했는데 내용이 황당하고 억지스러워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작곡가 조반니 파이지엘로는 이탈리아 태생으로 당대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였으며 러시아의 캐터린 2세 여제의 초빙을 받아 러시아 궁정작곡가로 8년간 봉직했다. 러시아 궁정작곡가 시절인 1782년 파이지엘로는 대본가 주세페 페트로 셀리니가 보마르셰의 원작에 충실하게 집필한 대본을 토대로 작곡을 하여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무대에서 초연했다. 그가 작곡한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러시아 초연 후 유럽 30여 개 도시에서 인기몰이를 하였다. 파이지엘로의 작품은 장기 공연의 단골 레퍼토리가



세빌리아의 이발사 (사진출처: operamylove)



테아트르 아르헨티나

되어 로시니의 작품이 등장하기 전까지 34년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참고로 하여 역사상 가장 뛰어난 희극 오페라로 일컬어지는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본격적으로 살펴본다.

원작 '세빌리아의 이발사'와 작가 보마르셰

로시니는 실패작 '토르발도와 도를리스크'와는 별개로 프란체스코 스포르짜 체사리니(Francesco Sforza Cesarini)로부터 테아트르 아르헨티나(Teatro Argentina)에서 당대 유명한 테너 마누엘 가르시아를 출연시켜 공연할 작품을 의뢰받는다. 체사리니는 로마의 대표적인 공연장 테아트르 아르헨티나의 소유주이면서 영향력 있는 기획자였다. 이렇게 탄생한 작품이 역사상 가장 뛰어난 희극 오페라로 일컬어지는 '세빌리아의 이발사'이다.

체사리니로서는 로시니를 로마로 초청하였지만 '토르발도와 도를리스크'가 실패하였고 두 번째 작품은 주제와 대본가가 확정이 안되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급했다. 체사리니는 하는 수 없이 1월에는 '알제리의 이탈리아인'을 재공연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1816년 2월 20일 로시니의 신작을 초연하기로 결정되어 있지만 천신만고 끝에 스테르비니가 대본가로 확정된 날은 1월 17일이었다. 작품은 보마르셰의 희극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각색하기로 했다.

스테르비니는 보마르셰의 원작과 1782년 초연된 조반니 파이시엘로의 오페라를 위해 쓴 대본을 참고로 로시니의 신작 오페라 대본을 집필했다. 로시니가 대본을 받은 것은 1월 20일이었다. 로시니는 선배 작곡가 파이시엘로의 인기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에 대해 오래 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므로 로시니는 파이시엘로 작품과 같은 원작이었음에도 자신의 신작에 대한 확신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 그 점에 대해 개의치 않았다. 참으로 시간이 촉박하였다. 로시니는 2월 6일 1막의 음악을 완성했고, 초연 당일인 2월 20일에는 부랴 부랴 2막 작곡까지 끝냈다.

오페라 서곡은 '팔미라의 아우렐리아노'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에서 사용한 서곡을 그대로 가져왔고 다른 선율들도 노골적으로 자기 표절할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당시에는 이런 방식은 다반사로 행해져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 앞선 작품에 대한 자기 표절이 있었다고 해도 1달 남짓 걸린 작곡 기간은 로시니의 놀라운 작곡 속도를 증명하고 있다. 이 당시 공연 창작과 초연의 과정을 보면 작곡가는 기획자와 신작을 계약하고 기획자가 주는 대본으로 음악을 작곡한다. 작곡가가 악보를 완성하면 가수들과 함께 리허설에 들어간다. 리허설 기간 내내 작곡가는 이들과 함께 하면서 가수들이 수정을 요구하면 작곡가는 그들과 논의하여 작품을 수정하였다.

초연 때 처음 3회는 작곡가가 필히 참석하여 상황을 살펴야했다. '세빌리아의 이발사' 경우 로시니가 받은 작곡료는 400 스키투디(Roman Scudi)로 당시로서 이 금액은 꽤 짭짤한 금액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오페라 주역인 알마비바 백작으로 나온 테너 마누엘 가르시아는 작곡료의 3배, 피가로 역의 루이지 잠보니는 작곡료의 2배가 되는 출연료를 받았다. 출연료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때는 작곡가보다 스타 가수들의 시대였다. 촉박한 시일로 급하게 작품을 준비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초연 4일전 기획자 체사리니가 갑자기 쓰러져 발작을 일으켜서 44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했다.

글_ 송종건

예수 탄생의 다양한 이야기



연말연시가 되면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름답게 빛납니다. 어두운 겨울밤을 비추는 빛은 종교에 상관없이 보는 이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요. 해마다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라는 인사를 건네지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도판 2. 헤르트헨 토트 신티 안스(Geertgen tot Sint Jans), 《예수 탄생(Nativity at Night)》, 1484-90년. 목판에 유채, 34 x 25cm, 런던 내셔널 갤러리.



도판 1. 대 피터르 브뤼헬(Pieter Brueghel the Elder), 〈베들레헴의 인구조사(The Census at Bethlehem)〉, 1566년. 목판에 유채, 115.5 x 163.4cm, 벨기에 왕립 미술관.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Christ)와 미사(mass)가 합쳐진 단어로 예수성탄 축일을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의 크리스트스(XPIΣΤΟΣ)가 라틴어 크리스투스(Christus)를 거쳐 만들어진 말이고요.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X-Mas'라고 쓰는 것은 그리스어로 쓴 크리스트스의 첫 글자 'X'를 이용한 약식 표기입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나자렛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루카 복음 2장에 간략하게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12월 25일이라는 날짜도 동지를 지나 하루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고대 로마의 태양 축제일을 세상의 진정한 빛인 예수가 탄생한 날로 해석하여 기독교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과 외경에 나온 이야기에 상상력을 더해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호적 등록을 하러 약혼자 마리아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관에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었다고 하는 구절을 통해 이들이 마구간에 머물렀음을 짐작할 수 있고요.

네덜란드의 화가 브뤼헬은 〈베들레헴의 인구조사〉라는 작품을 통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장면을 회화에 담았습니다(도판 1). 제목을 모른 채 그림을 보면 눈이 내린 시골 마을의 정경을 그린 풍속화 같습니다. 브뤼헬은 그가 살던 플랑드르의 모습을 배경으로 예수가 태어나기 직전의 베들레헴의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림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한 번 찾아볼까요. 그림 전경 왼쪽에 있는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호적 등록을 하러 모여든 사람들이지요.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봐야 전경 가운데 그려진 이제 막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가 보입니다. 노새를 탄 마리아와 목수의 연장을 들고 앞장선 요셉은 구원자의 부모라기보다는, 긴 여정에 지친 여행자의 모습이지요. 아무도 그들의 도착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겨울을 앞두고 돼지를 잡고 있기도 하는 등 각기 자기 일에 바쁜 듯합니다.



도판 3. 후호 판 데르 후스(Hugo van der Goes), 《포르티나리 제단화(Portinari Altarpiece)》, 1475년경. 목판에 유채, 253 x 304cm, 우피치 미술관.

가장 깊은 밤 시골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구간이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났습니다. 화가들은 갓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눈부신 빛 속에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스웨덴의 성녀 비르지타가 본 예수 탄생의 환영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기 예수의 몸에서 장엄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이는 요셉의 촛불이나 햇빛보다도 강렬했다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진정한 빛임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네덜란드의 화가 헤르트헨이 그린 《예수 탄생》을 보면 이 순간이 잘 나타납니다(도판 2). 한밤 중 마구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요람 대신 구유에 놓인 아이는 금빛 광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받아 빛나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로 서 있습니다. 어느새 이들을 찾아온 천사들 또한 이들과 함께 하고, 황소와 나귀도 보입니다. 마리아 뒤에 있는 요셉 또한 가슴에 손을 모으고 이기적의 순간을 목도합니다. 저 멀리에는 천사가 밤에도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이 보입니다.

세상에 온 구원자에게 경배를 드리는 목자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 또한 크리스마스과 관련된 그림의 주제로 자주 등장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달한 이들이기에 중요하다고 본 것이지요. 플랑드르 화가인 판 데르 후스는 《포르티나리 제단화》에서 이 장면을 다루었습니다(도판 3).

세 면으로 된 제단화의 가운데 중심 패널에는 목자들이 이제 막 도착한 순간이 나타납니다. 아기 예수는 구유가 아니라 바닥의 밀단에 놓여 있는데, 지난밤의 성스러운 빛을 연상시킵니다. 주변으로는 기도하는 자세의 성모 마리아와 요셉, 9명의 천사가 아기 예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요셉의 앞에는 신발 한 짝이 보이는데, 이는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성스러운 땅에서 신을 벗은 일을 연상시킵니다. 바닥에 놓인 꽃과 밀단도 종교적 상징을 담고 있고요. 화면 오른쪽 멀리로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장면이 반복됩니다.

양쪽 날개에는 이 그림을 주문한 토마스 포르티나리와 그의 가족이 무릎을 꿇고 기도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각자의 수호성인이 있고, 배경에는 왼쪽에는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마리아와 요셉이, 오른쪽에는 동방박사가 보입니다. 이런 구성을 통해 포르티나리의 가족은 중심 패널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수 탄생의 순간을 함께 하게 됩니다.

글_ 황주영



사진 출처 :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창작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눈이 폭폭 내린다.

눈은 폭폭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의 일부입니다. 이 시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창작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가 무대에 오르고 있거든요. 지난해 이맘때 초연된 이 작품은 시인 백석과 백석을 잊지 못해 평생 그리워한 기생 자야의 이야기입니다. 2016년 2월 트라이아웃 공연부터 인기가 대단하더니 제1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극본, 작사상, 연출상, 2016 뮤지컬 작품상까지 휩쓸었습니다. 요즘 공연 참 많죠? 라이선스 공연부터 창작 무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품 가운데 그 흔한 사랑이야기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진 출처 :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서울 성북동에 '길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범정 스님이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하죠. 그 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관람하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한 여인 앞에 여전히 활기 넘치는 말쑥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모던 보이 백석이죠. 그는 여인에게 여행을 떠나자고 합니다. 그렇게 시인 백석과 기생 자야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연히 만난 그들은 뜨겁게 사랑하지만 기생과 살림을 차린 아들을 두고 볼 수 없어 백석의 집안에서는 강제로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합니다. 하지만 신부의 얼굴도 보지 않고 백석은 다시 자야에게 돌아오죠. 사람들의 눈이, 가난이 그들을 괴롭히지만 '이 사람만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좋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백석이 만주로 떠난 사이 해방이 되고, 다시 고향 정주에 있는 동안 삼팔선으로 남북이 분단되면서 두 사람은 눈을 감는 날까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실존했던 인물과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극은 과거와 현재, 함흥과 서울, 정주를 넘나들며 어여쁜 젊은 날의 사랑부터 그 사랑을 간직하느라 홀로 쓸쓸하게 늙어버린 한 여자의 식한 그리움

까지 담아냅니다.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의 가장 큰 매력 가운데 하나는 백석의 아름다운 시 20여 편이 대사와 가사에 고스란히, 무척이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점인데요. 평안북도 사투리가 쓰인 시어는 따뜻한 울림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무대의 나머지 부분은 간결하고 절제돼 있습니다. 시에 담긴 쓸쓸함과 외로움, 한국적인 운치를 표현하듯 무대는 대나무로 정갈하게 둘러싸여 있고, 이 모든 음악은 단 한 대의 피아노가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백석과 자야를 연기하는 남녀, 극의 전체적인 해설을 비롯해 소소하게 필요한 인물을 연기하는 사내라는 인물 등 모두 3명의 배우만 등장합니다. 자야를 아끼는 백석의 마음도, 백석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자야의 마음도 넘치지 않습니다. 지극히 간결하고 담백한 무대와 절제된 배우들의 호연은 그 어느 무대보다 관객들에게 풍성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사진 출처 :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백석(1912~1996) & 자야(1916~1999)

뮤지컬 <나와 나타사와 흰 당나귀>를 보고 나면 실제 백석과 자야라는 인물이 궁금해질 텐데요. 평안북도 정주 출신인 백석의 본명은 백기행입니다. 1930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부문에 당선돼 등단했지만 주로 시를 썼는데요. 문인들이 더 사랑한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1936년에 발표한 시집 <사슴>은 100부 한정판이었는데요, 시집을 구하지 못한 운동주는 도서관에서 백석의 시를 하루 종일 필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때 함흥에서 영어교사로 일하다 교직도 그만두고 서울을 거쳐 만주로 갔고, 광복 이후에는 고향인 정주로 돌아갔는데요. 남북 분단으로 다시는 남쪽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1988년 월북문인 해금조치 이전까지는 '월북작가'라는 이유로 그의 작품마저 접할 수 없었죠. 해금 조치 이후 뜨겁게 재조명받고 있는 백석의 시는 고향인 평안북도 방언을 그대로 사용해서 토속적이고 향토색이 짙으면서도 소박하고 아름다운 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자야는 김영한이라는 본명보다 백석이 지어준 별호인 '자야'로 많이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16살에 기생이 됐는데 춤과 노래는 물론이고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에도 재능이 있었다고 하네요. 함흥에서 백석이 영어교사로

일하던 시절 학교 회식자리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는데요. 이후 백석과 자야는 청진동에 살림을 차리고 서울과 함흥을 오가며 3년간 동거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석이 만주를 거쳐 고향에 가 있는 동안 남북이 분단돼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 것이죠. 홀로 남은 자야는 성북동의 배밭골을 사들여 한식당을 운영했는데, 이곳이 이후 국내 3대 요정의 하나였던 '대원각'이 됩니다. 또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뒤 백석에 관한 책을 내고, '백석문학상'도 만드는데요. 김영한 씨는 노년에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누구나 와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곳이 되길 바란다'며 법정스님에게 대원각을 시주할 테니 절로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그 곳이 지금의 '길상사'인데요. 당시 시가 천억 원 규모였다고 합니다. '전 재산을 다 시주하여 후회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김영한 씨는 '천억 원이 그 사람 시 한 줄만 못해'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눈, 길상사, 사랑

뮤지컬 <나와 나타사와 흰 당나귀>가 공연되는 대학로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성북동에 자리한 길상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야 김영한 씨 역시 이곳에서 눈을 감았고, 유골은 유언대로 첫 눈이 도량을 순백으로 뒤덮는 날 길상현 뒤쪽 언덕바지에 뿌려



사진 출처 :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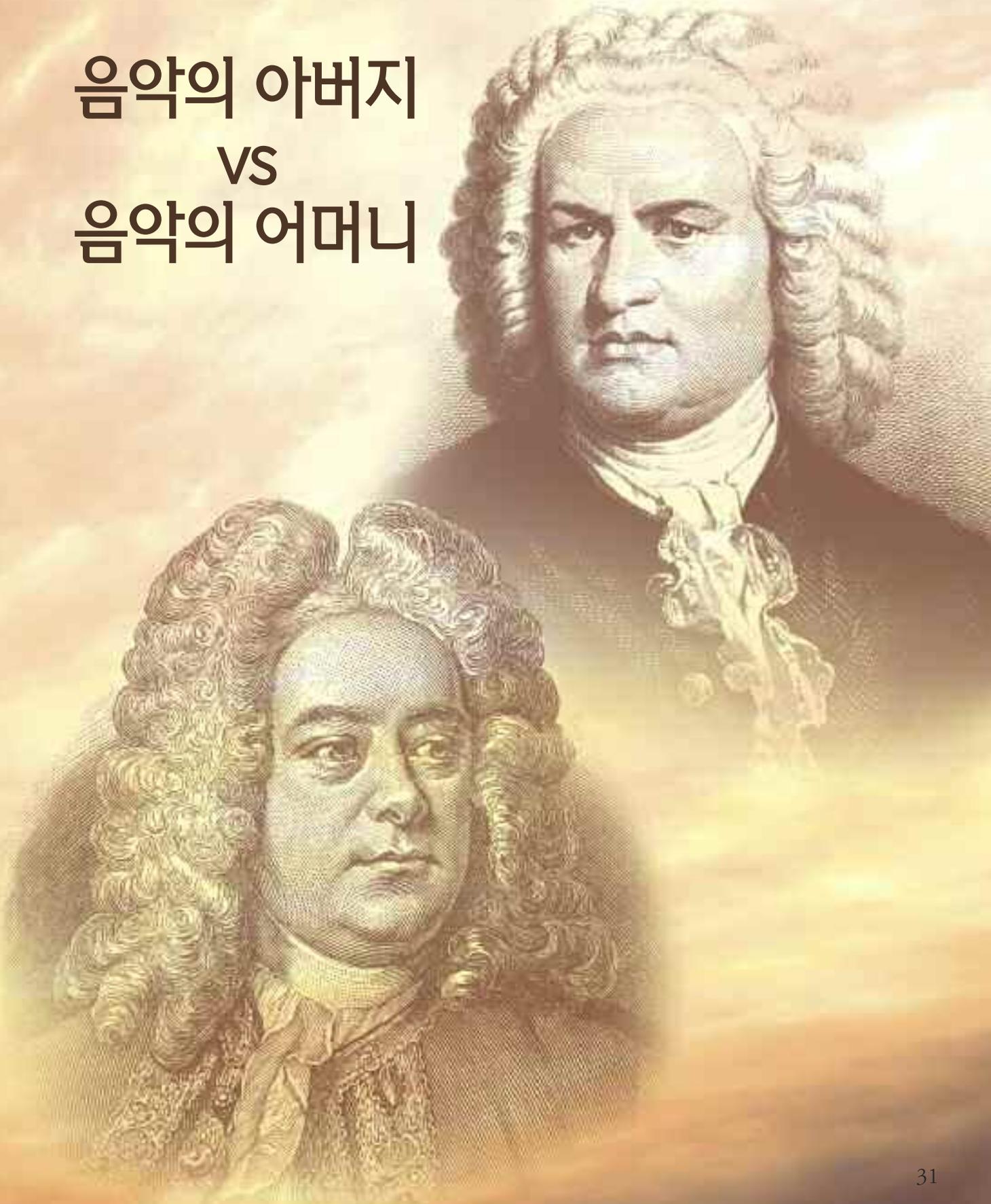
졌다고 하는데요.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뜨겁게 사랑했던 한 남자를 평생 잊지 못했던 한 여자의 시선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루지 못해 더욱 아름다운 사랑이야기지만, 객석 여기저기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수많은 일들이, 오랜 시간이 흘러 마지막에 남겨진 이야기는 첫눈처럼 아름답게 울리지만, 60년의 시간을 외롭고 쓸쓸하게, 서럽고 사무치게 버텨야 했던 한 여자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거든요. 극중에도 그런 말이 나오니까.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거울 속에 비친 늙은 여자의 얼굴’이라고. 누군가를 많이 사랑했지만 어느 순간 다른 길을 걷게 되고 오랜 시간 그리워해봤다면 공감할 수 있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자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계속 함께 했다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지지고 볶고 살았다면 이렇게 평생 사랑하고 그리워할 수도 없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예쁘고 아름답던 모습은 백석의 시에 고스란히 간직돼 있다고요. 이를 수 없었지만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사랑, 함께 하지만 처음과는 달리 변해가는 사랑, 어떤 것이 나올까요?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보고, 백석과 자야의 이야기를 알고 난 뒤 길상사에 가면 예전과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눈이라도 내릴 때면 그들의 이야기가 소곤소곤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사랑에 많이 아파했던 사람이라면 김영한 씨의 바람처럼 길상사에서 좀 더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니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항상 눈 내리는 이맘때 공연되네요. 배우도 관객도 모두 엷은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따뜻하고 시린 이야기, 눈이 오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가 떠오를 것 같아요.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눈이 폭폭 내린다. 눈은 폭폭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글_ 윤하정



음악의 아버지 VS 음악의 어머니



클래식, 서양음악

클래식 음악 혹은 서양 음악의 시작을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흐와 헨델을 처음으로 이야기 한다. 하지만 바흐나 헨델 이전에도 수많은 작곡가들이 있었고, 지금도 연주가 되는 작품들이 있다. 하지만, 악보나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고, 문헌을 통해서야 알 수 있는 작곡가들이어서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음악을 전공한 나로서도 생소한 이름들이 대부분이다. 그럼 왜 바흐와 헨델을 클래식 서양 음악의 시작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바흐와 헨델이 서양 음악의 기초를 정립하고, 크게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우리가 듣고 연주하는 모든 곡들은 바흐와 헨델의 화성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바흐와 헨델은 1685년 독일에서 태어난 동갑내기 작곡가이다. 이 두 명의 작곡가는 모든 면에서 비교를 당해왔다. 그들의 삶이나 음악, 심지어 말년에 시력을 잃었다는 것까지 비슷하다. 하지만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라 칭함을 받는 두 작곡가의 음악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음악가의 아들과 이발사의 아들



바흐

바흐의 집안은 250년 동안 50여 명의 음악가를 배출한 명문가이다. 어릴 때부터 늘 음악에 묻혀 살 수 밖에 없었던 바흐는 아버지에게 바이올린을 배우고, 당숙의 오르간 연주를 들으며 자랐다. 하지만 9살 때 부모를 모두 잃는 불행을 겪으며 고아가 된 바흐는 가난에 시달리게 된다. 하지만 음악공부는 멈추지 않았고, 큰형 요한 크리스토프 바흐의 집에 살면서 형에게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뛰어난 재능과 노력으로 형의 실력을 뛰어넘게 된다.

반면 헨델은 음악과 전혀 관계없는 집안에서 자라게 된다. 헨델의 아버지는 외과의사이자 이발사였다. 음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헨델의 아버지는 헨델의 음악공부를 허락하지 않았고, 음악가 보다는 돈 벌기가 수월한 법관으로



헨델

키우길 원했다. 하지만 헨델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다. 어린 헨델은 아버지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다락방으로 올라가 달빛을 불빛 삼아 악보를 읽으며, 독학으로 음악공부를 하게 된다. 그러한 노력 끝에 헨델은 주위사람들의 도움으로 9살 때부터 오르간 연주자에게 작곡과 오르간 연주법을 배우게 된다. 집안 환경도 전혀 다른 두 명의 동갑내기 작곡가 바흐와 헨델의 어린 시절은 9살을 기준으로 서서히 바뀌게 된다.

생계형 음악가



오르간 연주하는 바흐

큰형의 집에서 얹혀살던 바흐는 스스로 먹고 살 방법을 마련해야만 했다. 큰형도 더 이상 동생들까지 먹여 살릴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14살의 바흐는 큰형의 집에서 나오게 된다. 음악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바흐는 독일 북부 뤼네부르크에 있는 교회 합창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합창단원이 되면 학비를 내지 않고도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르간 연주자로 활동을 시작한 바흐는 바이마르 궁정악단, 아르슈타트 교회, 성브라지우스 교회를 거쳐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의 '칸토르'로 취임하게 된다. '칸토르'란 교회에서 음악을 만들고, 합주단과 합창단을 지도하는 음악감독 같은 직책이다. 바흐는 이곳에 정착한 후 죽을 때까지 27년동안 작곡과 연주를 묵묵히 해나가게 된다.

바흐는 평생 수많은 곡을 작곡했는데, 그 중 대부분이 교회음악이었다. 바흐의 작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 칸타타(성악곡)이다. 200여곡의 교회 칸타타를 작곡했으며, 바흐의 칸타타는 종교음악을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가 헨델



헨델 오페라

바흐와는 달리 헨델은 음악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던 작곡가이다. '음악을 하면 굶어 죽기 십상이다'라는 아버지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과대학에 진학을 하기도 했지만, 1년만에 때려치우고 음악에 더욱 매진하게 된다. 헨델은 단지 음악을 만드는데 만족하지 않았고 사업으로 연결시켜 나갔다. 직접 오페라단을 만들어 대규모 극장에서 공연을 하였으며, 대부분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된다. 헨델은 자신의 음악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많은 돈까지 벌어들이게 된다. 아마도 음악으로 돈을 번 최초의 음악가가 아닐까 싶다.

헨델은 한때 도박이나 투기에 빠지기도 했다. 그로 인해 '돈을 위해 음악을 팔아먹은 사기꾼'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음악사업을 통해 대중에게 음악을 알릴 수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비난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대중의 인기

바흐와 헨델의 음악은 바로크시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내면은 매우 다르다. 일생 동안 교회에서 연주와 음악감독으로 작곡활동을 했던 바흐의 음악은 본질적인 요소에 충실하며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면, 헨델은 왕과 왕비의 후원을 받아 대중의 입맛에 맞는 오페라 공연으로 화려한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바흐의 음악을 구수한 시골 된장 찌개라 한다면, 헨델의 음악은 온갖 양념이 들어간 특별한 맛을 추구하는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살던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작곡가의 개성을 살리기에는 어려운 조건과 제약들이 많았다. 그 당시 음악가들은 왕이나 귀족에게 고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용주가 원하는 음악을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흐와 헨델은 뛰어난 재능으로 각자의 개성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음악적 개성은 두 명의 작곡가의 명성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헨델은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화려한 음악을 만들어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끈 반면, 바흐는 마치 수학공식을 대입하듯 엄격하고 절제된 음악을 만들면서 대중의 이목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른 삶? 닮은 삶?



헨델 비석



바흐 동상

당대의 취향에 맞추기 보다는 신앙심을 바탕으로 작곡을 한 바흐는 대중에게 인기가 없었다. 게다가 헨델 같은 사업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악보를 보존하거나 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평생을 바쳐 만든 바흐의 곡들은 그의 죽음과 동시에 이리저리 흩어지게

된다. 항상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바흐의 가족들도 바흐의 작품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보단 생계를 위해 바흐의 악보를 싼값에 팔아 넘기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바흐라는 작곡가가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금방 잊혀지게 된다. 대중에게 인기를 끌고, 왕의 총애를 받고 살다가 사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영예를 안은 헨델의 처지와는 180도 다르다. 그러나 두 사람의 운명은 바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역전된다.

닮은 듯 하지만 닮지 않았던 작곡가 바흐와 헨델. 음악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불리는 이들의 음악은 고전과 음악의 바탕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 서양 음악의 발전에 가장 앞선 사람들이다.

음악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음악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잘 해주었기에 음악의 아들들(그 이후의 모든 작곡가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에서 쇤베르크 까지)의 작품 역시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불멸의 작품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글_ 김용진

뮤지컬처럼 사는 인생

제8화

다른 문이 열려 있습니다.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Sound of Music)

길에서 오랜만에 조금은 어색한 사이의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악수를 청하느라 손을 내밀었는데 그분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시더군요. 저도 당황해서 얼른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데 숙인 제 시선에 그분이 내민 악수의 손을 봤습니다. 더 어색해 질까봐 빠른 동작으로 손을 덩석 잡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헤어지고 난 후 저는 혼자 박장대소하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똑같은 장면이 뮤지컬 왕과 나(King and I)에 있기 때문이며 심지어 제가 연기했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 서로가 소통한다는 증거로 손을 잡는 행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라에 따라 끌어안거나 입맞춤을 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손을 맞잡는 행위를 통해 상호 소통의 증표를 삼는 것 같습니다.

나라와 나라, 기업과 기업이 협력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 할 때도 손을 잡는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손을 잡는 것은 그만큼 상징적인 표현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그리 거창하게 이야기 하지 않아도 남녀 간에 사랑이 싹트는 과정에서 제 1 단계가 손을 잡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근거림을 거친 조심스러운 시도를 통해 손이 맞잡혔을 때 설레임과 행복감을 어찌 글로 설명하겠습니까? 그저 손 한번 잡았을 뿐인데 말입니다.

최근 우리 상황이 손을 잡는다는 단어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라는 이름으로 세계무대에서 누군가와 손을 잡고 혹은 누군가와 아쉽지만 손을 조금은 놓아야 하기도 하고 어쩌면 상대가 놓고자 하는 손을 우리가 꼭 잡아야 하기도 하고 누군가와 누군가가 꼭 잡고 있던 손을 어떻게든 놓게 만들기도 하는 그야말로 손에 손 잡고(Hand in Hand) 벽을 넘어서는 일이 너무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1940년대를 거쳐 50년대의 세계는 지금보다 더 손잡기가 어려운 대립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금은 '이념'이라는 단어로 인해 극단의 양분화 된 세계는 아니니까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은 아무리 뻗어도 닿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손처럼 세계를 두 동강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당시 세계를 주름 잡던 미국이라는 나라는 주변의 같은 이념으로 뭉친 제국들과 함께 거대 강대국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이민을 받아들였으며 (물론 미국의 나라 정체성 자체가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이지만) 확장의 시대에 겪는 골치 아픈 인종의 섞임이라는 과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는 사람들의 감성을 완화시켜 서로의 섞임, 교류, 소통을 이끌어 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띄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영화, 뮤지컬과 같은 대중예술의

힘이 많이 작용하였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나온 영화, 뮤지컬 작품의 대다수가 '화합'이라는 중요한 타이틀을 갖고 만들어 졌고 실제로 대중들을 화합하게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뮤지컬에서 이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던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처드로저스와 오스카해머스타인 2세가 그들입니다. 이념의 냉전시대를 뮤지컬의 황금기로 만들어 낸 로저스와 해머스타인 2세는 R&H라는 브랜드로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을 설레게 만든 장본인이며 뮤지컬 황금기 대표 크리에이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43년 오클라호마를 시작으로 1945년 회전목마 (Carousel), 1949년 남태평양 (South Pacific), 1951년 왕과 나 (King and I)로 이어지는 명콤비의 작품 활동은 대립과 갈등으로 구분된 두 팀이 손을 잡고 화합하게 되는 결말에 이르는 일관된 작품 세계를 이어갑니다. 그 중 가장 마지막 작품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이 있으니 바로 1959년 발표된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Sound of Music)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

노래로 부르는 도레미

이제는 뮤지컬이 제법 사람들에게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뮤지컬 넘버(뮤지컬 노래) 한두 곡쯤은 제목을 알거나 흥얼거리십니다. 켈츠의 메모리, 지킬 앤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이런 곡들은 너무도 대중적이고 유명해져서 이젠 낯설지 않은 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뮤지컬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초등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뮤지컬 넘버는 의심의 여지없이 도레미 송일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요? Do, a deer a female deer~ 로 시작되는 이 음악은 이미 음악교과서에 필수적으로 실려 있으며 영어를 처음 배우거나 음악학원의 입문 노래로 당연히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에 못지않은 유명 노래는요? 에델바이스 어떻습니까?

음악 교과서에 '오스트리아 민요'라고 명시됐을 만큼 유명한 이 곡은 가곡도, 민요도 아닌 R&H가 만든 대표 뮤지컬 넘버입니다. 미국 레이건대통령 시대에 백악관을 방문한 오스트리아 대통령을 위해 연주한 음악이 에델바이스라고 할 만큼 오스트리아 곡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사운드 오브 뮤직 때문에 이 곡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My Favorite things)은 어떠십니까? 들어 보셨지요? So Long, Farewell은요? 안녕~ 안녕~ 당연히 아시겠지요? 열여섯 열일곱 (Sixteen going on seventeen)도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한 작품의 노래를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다는 것에 놀라셨을 텐데요 이 뿐만 아니라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의 음악은 전곡이 다 메가 히트 넘버라는 점에서 경이적인 기록을 남긴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존인물이었던 오스트리아의 폰트랩 대령 일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을 배경으로 일곱 남매를 키우고 있는 대령의 집에 새로 부임한 가정교사가 아이들과 겪는 우정과 사랑을 통해 결국 대령의 부인이자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전쟁을 피해 스위스로 망명한다는 이야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1949년에 발간된 마리아 폰트랩의 자전적 소설 『The Story of the Trapp Family Singers(1949년)』가 1956년 독일에서 『Die Trapp Familie(트랩 가족 가수)』로 영화화된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뮤지컬 스타 메리 마틴은 그녀의 남편이자 프로듀서인 리처드 할리데이와 함께 하워드 린지와 러셀 크루즈에게 대본을, 리처드 로저스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에게 작곡과 작사를 맡겨 무대화작업을 착수시켰습니다. 1년 후인 1959년 11월 16일, 메리 마틴이 열연한 사운드 오브 뮤직은 뉴욕 브로드웨이 란트 폰테인 극장에서 시작되어 1963년까지 43개월간 1,143회 공연되었고 토니상 최우수 뮤지컬 등 7개 부문을 석권하며 50년대 브로드웨이의 대표 뮤지컬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1965년에는 20세기 폭스에서 제작한 로버트 와이즈 감독의 영화로 더 알려져 있는데 줄리 앤드류스,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주연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은 '사상

최고의 뮤지컬 영화라는 찬사를 받으며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작품을 보신 분들에게 인상 깊게 남겨져 있는 호각으로 아이들을 부르는 에피소드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 대 저택에서 아이들을 찾기 쉽게 만들어진 호출법이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조금 특별한 이야기

고집불통 장교와 개혁의 여교사(진보와 보수)의 대립과 화합

작품 속 폰트랩 대령은 고집불통에 보수적이고 딱 딱한 오스트리아의 장교입니다. 그는 아이들을 호각으로 호출하고 노래를 금지하였으며 제복을 입고 규율과 통제로 질서를 만들어 냅니다. 그 곳으로 투입된 새로운 가정교사 마리아는 그야말로 골치 텅어리입니다. 마리아를 두고 부르는 수녀원 수녀들의 노래 제목이 바로 마리아를 어쩌면 좋을까? (How Do You Solve a Problem Like Maria?)일 정도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아인 것입니다. 수녀원에서, 폰트랩 대령의 집에서도 끊임없는 대립과 사고를 통해 사건을 만들어 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개혁은 폰트랩 일가를 살려 냅니다. 음악으로 가족을 하나로 만들고 멀어진 아빠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결국 가족을 완성시키고 그 가족의 행복을 찾아 고난의 길을 떠나는 원동력이 됩니다.

로저스와 해머스타인의 작품들이 갖고 있는 색채가 거의 같은 맥락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클라호마의 농부와 카우보이, 회전목마의 전달 같은 남편과 착한 아내, 남태평양의 간호장교와 프랑스인 에밀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을 보이는 작품은 단연 뮤지컬 왕과나(King and I)일 것입니다. 사이암(태국의 옛 지명)의 왕 몽콕과 영국에서 온 가정교사 아나가 갖고 있는 인물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화합을 통한 변화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전신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구조는 당시의 시대 상황 그 자체였으며 지금도 우리 뿐 아니라 많은 세계 사람들이 겪고 있는 대립과 갈등의 이야기 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키고자 하는 사람과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결국 극단의 상황까지 치닫지만 끝내 손을 잡는 화합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자 우리가 바라는 미래 일지도 모릅니다.

더더욱 R&H의 작품이 위대한 이유는 이러한 개인적 갈등의 구조에 극단적인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오클라호마의 미 서부 개척시대, 왕과나의 유럽열강의 아시아 침략시대, 그리고 사운드 오브 뮤직의 2차 세계대전이 그것입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을 해결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화합이라는 것을 사운드 오브 뮤직은, 아니 많은 뮤지컬 작품은 강조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사회가 이메일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갈등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해결책으로 제시된 대사는 '한쪽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쪽 문을 열어 놓으신다' 였습니다. 이 말을 통해 마리아는 자신에게 열어 놓은 문을 찾아 길을 나섰고 결국 극단의 두 사람은 화합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보수와 진보는 만나지 못하고 손을 아무리 뻗어도 닿지 않으며 서로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서로 닫힌 문만 두들기며 문 닫은 상대를 비난합니다.

다른 쪽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열린 문을 찾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야 합니다.

2차 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치에게 끌려가게 될 극단의 위기는 마리아와 폰트랩이 손을 잡고 산을 넘어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립만 계속 된다면..

나치에게 끌려가 비극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손을 잡는 화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잡은 손에 의지해 산을 함께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_ 오세준



Performances

12월 공연가이드

울산 열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송년 음악회

공연정보 12. 3.(일)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 열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입 장 료 V석:1,000원
공연개요 아마추어 연주자로 구성된 울산 열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송년 음악 공연

더 스트링스 아마추어 챔버 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2. 10.(일)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더 스트링스 아마추어 챔버 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주변에서 접하는 유명한 곡들을 오케스트라 편곡에 맞추어 연주를 하며, 일반인들이 취미 및 자기 계발로 참여하는 순수한 아마추어 단체 공연

구립교향악단 제59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2. 12.(화)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남구 구립교향악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남구 구립 교향악단의 제59회 정기 연주 공연

제20회 이영아무용단 창작 정기 공연 太和江戀歌-VI. 어머니의 강

공연정보 12. 13.(수) 19: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이영아 무용단
입 장 료 R석:30,000원
공연개요 이영아무용단의 제20회 정기 창작 공연

2017 그라시아스 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정보 12. 14.(목)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사)그라시아스합창단
입 장 료 V석:100,000원 / R석:80,000원 / S석:60,000원
공연개요 성탄을 주제로한 음악을 통하여 듣는 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공연

울산생활과학고 윈드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2. 15.(금) 15: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생활과학고 윈드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윈드오케스트라로 표현할 수 있는 행진곡, 클래식소품 서곡, 경음악 등의 프로그램을 연주하는 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국악)힐링 콘서트

공연정보 12. 17.(일) 18:1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아마추어 연주자로 구성된 울산 열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송년 음악 공연

울산 남구 소년소녀 합창단 제9회 정기 연주회

공연정보 12. 17.(일)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 남구 소년소녀 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남구 소년소녀 합창단의 합창과 기악공연

울산색소폰오케스트라·울산크리스찬 색소폰오케스트라 합동송년음악회

공연정보 12. 19.(화)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남구 구립교향악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색소폰으로 기존의 가요, POP, 영화음악 등을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수 있게 편곡하여 연주하는 공연



Performances

12월 공연가이드

울산학춤 20주년 기념공연

공연정보 12. 19.(화)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학춤보존회
 입장료 A석:10,000원
 공연개요 울산학춤 발굴 20주년 기념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오키리나와 우쿨렐레의 밤

공연정보 12. 21.(목)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남구 신정13동 주민자치위원회
 입장료 무료
 공연개요 오키리나, 우쿨렐레, 아코디언, 블루스하모니카 연주 공연

제2회 아르모니아 어린이 합창단 정기 연주회

공연정보 12. 22.(금)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아르모니아 어린이 합창단
 입장료 무료
 공연개요 클래식에서 재즈 팝송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명곡들의 어린이 합창 공연

2017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내한공연 - 지브리, 재즈를 만나다

공연정보 12. 24.(일) 17: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지누락엔터테인먼트
 입장료 무료
 공연개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명곡들을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드럼의 재즈 사운드로 편곡하여 즐기는 공연

창작뮤지컬 '외솔'

공연정보 12. 29.(금) 19:30 대공연장
 12. 30.(토) 19:30
 공연주최 울산광역시/외솔뮤지컬컴퍼니
 입장료 R석:30,000원 / S석:20,000원 / A석:10,000원
 공연개요 울산 출신 한글학자, 독립운동가인 외솔 최현배 선생의 일대기를 극화한 한글문화중심도시 울산을 대표하는 창작 뮤지컬

가족뮤지컬 "렛잇고" - 앵콜 공연

공연정보 12. 30.(토) 11:00/14:00/16:00
 12. 31.(일) 11:00/14:00 소공연장
 공연주최 극단예일
 입장료 A석:40,000원
 공연개요 어린이를 위한 가족뮤지컬 렛잇고 앵콜 공연

Exhibitions

12월 전시가이드



울산·제주 한국화 교류전

전시기간 12. 6. ~ 12. 11.(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울산한국화회
전시내용 울산작가 35명, 제주작가 35명의 참여로 지역적 특색작품을 비교하여 발전에 기여할 작품 70여점 전시

울산퀼트작가회 회원전

전시기간 12. 6. ~ 12. 11.(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울산퀼트작가회
전시내용 여러조각을 이용하여 한가지의 창작과 전통적인 작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돼 가는 퀼트는 아름다움 그 자체를 표현, 공예 200여점 전시

제8회 울산민화사랑전

전시기간 12. 6. ~ 12. 11.(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민화사랑회
전시내용 민화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 전시를 통해 울산시민 모두 따뜻하고 평안해 지기를 기대하며 공유하고자 함, 30여점

제14회 울산함월수석회 회원전

전시기간 12. 9. ~ 12. 10.(2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함월수석회
전시내용 수석전시 및 작품해설

울산사진씨클연합회 합동전

전시기간 12. 13. ~ 12. 18.(6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사진씨클연합회
전시내용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창작 의지를 고취하고 울산을 비롯한 자유 작품으로 한 해동안 촬영한 사진을 발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사진 예술인의 저변 확대의 기회로 사진 250여점 전시

제11회 울산예술작가회 정기전

전시기간 12. 20. ~ 12. 25.(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예술작가회
전시내용 설치, 입체, 평면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 작품을 비교 감상 할 수 있는 50여점 전시



Exhibitions

12월 전시가이드

울산미협 문인화분과전

전시기간 12. 20. ~ 12. 25.(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미협 문인화분과
 전시내용 사군자 화조 군방도 등 회원 45명의 작품 그림 45점 전시

제17회 뉴비전 사진동호회전

전시기간 12. 20. ~ 12. 25.(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뉴비전사진동호회
 전시내용 울산의 문화재, 포구, 명산, 12경 등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드론 촬영을 통해 수평적인 시각을 수직적인 시각으로 바꿈으로 새로운 시각을 담아낸 작품 40점 전시

제6회 울산누드사진협회 회원전

전시기간 12. 20. ~ 12. 25.(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누드사진협회
 전시내용 (사)한국누드사진협회 울산지회는 누드사진 예술분야의 저변확대와 예술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인 선 위주의 작품에서 탈피, 소나무 대나무 등 자연과 어우러진 주제를 가지고 누드 작품을 전시 사진 90여점

제15회 울산쌈조각회 회원전

전시기간 12. 27. ~ 12. 31.(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쌈조각회
 전시내용 쌈조각회 회원의 자율적인 주제로 다양한 소재와 재료의 특징을 살려 여러 작가들의 느낌이 다른 작품을 관람객과 공유, 공예 70여점 정도

동구를 담다 사진전

전시기간 12. 27. ~ 12. 31.(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울산광역시 동구
 전시내용 울산 동구 관내 경로당을 소재로 어르신들의 공동체 생활 모습 등을 담은 다큐멘터리 사진전으로 작품 40여점 전시

제17회 울산사생회 정기전

전시기간 12. 27. ~ 1. 1.(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사생회
 전시내용 매월 1회 울산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사생하고 일상을 그림으로 표현, 미술작업을 하여 연1회 정기적으로 작품을 전시 시민들과 공유 하고자 함, 그림 50여점 전시

호연생활민화연구원 회원전

전시기간 12. 27. ~ 1. 1.(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호연생활민화연구원
 전시내용 전통민화와 우리생활과 어우러진 생활민화의 작품성과 생활소품등에 접목되어 실용민화로서의 우수성을 전시 홍보 생활민화 150점, 민화 소품 150점 정도 전시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p>대 해오름동맹 합동공연 라 트럼바이터 (20:00)</p>	
3	4	5	6	7	8	9
<p>대 울산 열린 평화모듬악제스트라아 합창에는 중년 음악회 (19:30)</p>				<p>소 연극 리아영 (19:30)</p>	<p>대 뮤지컬 <레베카> (19:30)</p> <p>소 연극 리아영 (16:00/19:30)</p>	<p>대 뮤지컬 <레베카> (15:00/19:00)</p> <p>소 연극 리아영 (16:00)</p>
10	11	12	13	14	15	16
<p>대 뮤지컬 <레베카> (15:00)</p> <p>소 더 스트림스 이미족어 챔버 오케 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19:30))</p>		<p>대 구림교향악단 제49회 정기연주회 (19:30)</p>	<p>대 제20회 어린이무용단 창작 정기 공연 추재그림화-VI. 어머니의강 (19:00)</p> <p>소 두란 (19:30)</p>	<p>대 2017 그라시아 합창단 크리스마스 건타타 (19:30)</p>	<p>대 울산생활교향고 윈드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15:00)</p>	<p>소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17 소년음악회 (17:00)</p>
17	18	19	20	21	22	23
<p>대 울산 남구 소년소년 합창단 제9회 정기연주회 (19:30)</p> <p>소 시민과 함께하는 (국악)합림 콘서트 (18:10)</p>		<p>대 울산학춤 20주년 기념공연 (19:30)</p> <p>소 울산새싹폰악제스트라, 합동소년음악회 (19:00)</p>		<p>대 울산시립교향악단 2017 소년음악회 (20:00)</p> <p>소 시민과 함께하는 오가리나원우를 렐레의 밤 (19:30)</p>	<p>대 나눔선 콘서트 (20:00)</p> <p>소 제4회 아르모니아 어린이 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p>	<p>소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2017 소년음악회 (17:00)</p>
24	25	26	27	28	29	30
<p>대 2017 키즈미터테이션 트리오 내 함공연 - 지브리, 채플 만나다 (17:00)</p>					<p>대 정전뮤지컬 '외출' (19:30)</p>	<p>대 정전뮤지컬 '외출' (19:30)</p> <p>소 기주뮤지컬 '렛잇고' -영클 공연 (11:00/14:00/16:00)</p>
31						
<p>소 기주뮤지컬 '렛잇고' -영클 공연 (11:00/14:00)</p>						

전시일정

1 제1전시장 2 제2전시장 3 제3전시장 4 제4전시장 5 갤러리룸 6 야외전시장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울산·제주 한국화 교류전 ~12. 11.(월) 2 울산펠트작가회 회원전 ~12. 11.(월) 4 제8회 울산민화사랑전 ~12.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제14회 울산함울수서회회원전 ~12. 10.(일)
10	11	12	13	14	15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4 울산진씨클어연합회 합동전 ~12. 18(월) 			
17	18	19	20	21	2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회 울산예술작가회 정기전 ~12. 25.(월) 2 울산비협 문인화분과전 ~12. 25.(월) 3 제17회 누비진 사진동호회전 ~12. 25.(월) 4 제6회 울산누드사진협회 회원전 ~12. 25.(월) 			
24	25	26	27	28	2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회 울산섬조각회 회원전 ~12. 31.(일) 2 동구를 담다 사진전 ~12. 31.(일) 3 제17회 울산사생회 정기전 ~1. 1.(월) 4 흥연생화민화연구원 회원전 ~1. 1.(월) 			
31						

*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울산문화예술회관

이모저모



3월, 대공연장 새단장

6개월간의 시설개선공사를 거쳐 넓어진 좌석과
풍성한 사운드로 안락한 관람 환경을 제공합니다.



4월, 대공연장 1층에 종합안내소 개소로

문화예술회관 종합안내 서비스 제공합니다.



5월, 야외공연장을 새단장하여

노후되고 불편했던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6월, 시립합창단의 미국 순회공연

특히, 포틀랜드에서 자매도시 30주년을 기념한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9월, 울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개최로

울산 지역 27개의 학교 오케스트라가 참여하여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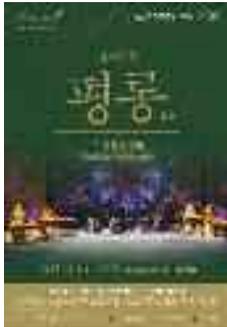


11월, 마르티누 체코필하모닉 공연에 따른 주한 체코대사 방문이 있었으며,

공연 또한 관객들의 호평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 본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 커뮤니티 > 회관 이모저모 게시판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구문화의전당



정가악회 「평릉 그 평안한 떨림」

- 일 시 : 12. 1.(금) 19:30
- 장 소 : 함월홀
- 관 람 료 : 전석 1만원
- 개 요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7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선정사업으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종묘 제례악, 아리랑, 판소리에 미니멀하고 다이내믹한 현대적인 사운드를 더해 진한감동과 전율을 선사하는 공연



창작연회컬 「다시서는 새벽시장」

- 일 시 : 12. 6.(수) 19:30
- 장 소 : 함월홀
- 관 람 료 : 무료
- 개 요 : 2017 중구문화의전당 공연장상주단체 교류공연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이고 쉬운 레파토리로 광대들이 놀고 뛰고 날아다니는 다이나믹한 몸놀림과 공연장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구성진 입담으로 유머와 맛깔스런 재담을 선보이는 공연



「허공속의 착각」

- 일 시 : 12. 8.(금) 19:30
- 장 소 : 함월홀
- 관 람 료 : 무료
- 개 요 : 2017 중구문화의전당 공연장상주단체 교류공연으로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마음속으로 꿈꾸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반사회적장애를 주제로 표현한 공연



2017 중구문화의전당 크리스마스페스티벌 「헨델의 메시아」

- 일 시 : 12. 21.(목) 19:30
- 장 소 : 함월홀
- 관 람 료 : 전석 1만원
- 개 요 :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주되는 세계 3대 오라토리오 중 하나로 제1부 '예언과 탄생', 제2부 '수난과 속죄', 제3부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서곡을 포함한 총 52곡으로 구성된 공연



2017 중구문화의전당 크리스마스페스티벌 「2 Diva with 민경인 T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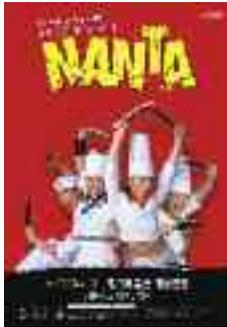
- 일 시 : 12. 22.(금) 19:30
- 장 소 : 함월홀
- 관 람 료 : 전석 1만원
- 개 요 : 탁월한 곡 해석 능력과 화려한 무대 매너로 재즈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미 스타 피아니스트인 민경인이 이끄는 트리오가 클래식, 핑키, 블루스에 이르는 다양한 사운드를 선보이는 공연



2017 중구문화의전당 크리스마스페스티벌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 일 시 : 12. 23.(토) 19:30
- 장 소 : 어울마루(지하1층)
- 관 람 료 : 전석 1만원
- 개 요 :
 - 비제 - 파랑들
 - 주제 - 경가병 서곡
 - 로시니 - 율리엠텔 서곡
 - 비제 카르멘 서곡
 - 바하 - 미누에트
 - 모차르트 - 밤의 여왕 이리아
 - 뮤지컬 팬텀오브오페라
 - 오펜바흐 - 강강
 - 스트라우스 - 라데츠키 행진곡 등

현대예술관



문화송년 송승환의 난타

- 일 시 : 12. 1.(금) ~ 12. 2.(토)
금 20:00, 토 15:00, 19:00
- 장 소 : 대공연장
- 관 랑 료 : 1층 35,000원, 2층 20,000원
- 개 요 : 국내 공연 최초로 1,000만 명돌파
사물놀이 리듬 위에 주방의 사건을
코믹하게 그려낸 한국 최초의
비언어극



포르테 디 콰트로 콘서트 : 클래식

- 일 시 : 12. 15.(금) ~ 12. 16.(토)
금 20:00, 토 19:00
- 장 소 : 대공연장
- 관 랑 료 : R석 95,000원, A석 75,000원,
B석 55,000원
- 개 요 : 사중창의 파워, 천상의 하모니!
JTBC 팬텀싱어1 초대우승팀
'포르테 디 콰트로' 콘서트



천재문학가, 애니메이션 거장을 만나다 - 하루키 & 미야자키 하야오 오케스트라 콘서트

- 일 시 : 12. 24.(일) 19:00
- 장 소 : 대공연장
- 관 랑 료 : 1층 66,000원, 2층 44,000원
- 개 요 : 천재문학가 무라카미 하루키와
애니메이션 거장미야자키하야오의
작품속음악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콘서트

울주문화예술회관



울주시네마 무비나잇 아이캔스피크

- 일 시 : 12. 9.(토) 15:00
- 관 랑 료 : 전석 2,000원
- 공연개요 : 꼭...하고 싶은 말이 있고, 듣고
싶은 말이 있다. 8000건에 달하는
민원왕 도깨비 할머니 나옥분
여사와 9급 공무원 박민재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낸 영화



울주시네마 무비나잇 문라이트

- 일 시 : 12. 9.(토) 19:00
- 관 랑 료 : 전석 2,000원
- 공연개요 : 마이애미를 배경으로 한 흑인 아이가
소년이 되고 청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푸르도록 치명적인 사랑과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



체코 보니푸에리 합창단

- 일 시 : 12. 17.(일) 19:30
- 관 랑 료 : 전석 25,000원
- 공연개요 : 체코의 문화보석으로 불리는
소년합창단 보니푸에리가 울주를
찾아 순수한 보이스와 탄탄한
가창력, 재치있는 안무 및 연출을
뽐내며 연말과 크리스마스시즌
가족, 연인을 위한 최고의 공연



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혜·택

문의 : 226-8242

롯데호텔 울산 · 롯데시티호텔 울산



이용금액 15~50% 할인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시 사전 문의바람)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남구 삼산로 282
문의 | 052-960-4300

메가박스(울산점)



영화 3천원, 팝콘 콤보 2천원 현장할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중구 젊음의거리 73
문의 | 1544-0070

밀레(달동점)



정상가의 10% 할인 (용품 제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남구 삼산로 126
문의 | 052-260-0022

카페베네(울산남구청점)



전 메뉴 10% 할인

대상 | 유료회원, 이용 당일 공연티켓 소지자
위치 | 남구청 맞은편
문의 | 052-267-1736

파리바게뜨(울산예술회관점)



이용금액 5% 할인 (중복 할인 가능)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회관 앞(남측)
문의 | 052-272-8279

THE ALLEY COFFEE(엘리커피)



음료 5% 할인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제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남구 신정로 33번길 30
문의 | 010-8348-4800

쉼터



이용금액 5% 할인
(음료, 단체식 등 일부 제외)

대상 | 유료회원, 이용 당일 공연티켓 소지자
위치 | 회관 전시동 1층
문의 | 052-274-4393

소풍가



이용금액 5% 할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신정동 극동스티클레스 1층 상가
문의 | 052-275-3579

모리샤브



이용금액 10% 할인
(중복 할인 불가)

대상 | 유료회원, 이용 당일 공연티켓 소지자
위치 | 남구 변영로 250번길 9 세이브존 7층
문의 | 052-260-9150

신라스테이



이용금액 60~70% 할인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시 사전 문의바람)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남구 삼산로 282
문의 | 052-901-9000

울산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 가입안내

가입 방법

- | 회원기간 | 1년, 3년, 5년, 10년
- | 회원종류 | 일반회원, 청소년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
- | 가입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유료회원 전환 (단체회원의 경우 전화 문의)

구분	가입기준	연회비				혜택인원
		1년	3년	5년	10년	
일반회원	만 19세 이상	20,000원	50,000원	80,000원	150,000원	2명
청소년회원	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	10,000원	25,000원	40,000원	75,000원	1명
가족회원	한가족	40,000원	100,000원	160,000원	300,000원	4명
단체회원	기업체 또는 단체(10명 이상)	10,000원 (1인)	25,000원 (1인)	40,000원 (1인)	75,000원 (1인)	가입인원

| 가입문의 |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8 <http://ucac.ulsan.go.kr>

유료회원 혜택

월 1회 발행되는 문예정보지(ARTS FRIEND) 우송

각종 공연정보 및 이메일 문자 안내

각종 공연 · 전시 할인 제공

- 연간 50여회의 울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공연 30% 할인
- 기획공연 30% 이내 할인
- 뒤란 등 상설기획공연 30% 할인
-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공연 초대
- 회관 주최 유료전시 30% 할인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적립률 공연별로 상이, 유효기간 5년) ※ 대관공연 적립제외

- 회관 주최 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5%, 회원가입비의 10%
- 적립된 마일리지 포인트는 회관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시 사용가능

문화예술회관 협약점 이용 시 특별혜택 제공

나윤선 콘서트

2017.
12. 22. Fri
PM 8

울산문화
예술회관
대공연장

Yoonsun
Nah
Concert

티켓가격

VIP석 6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주최
울산광역시

주관
울산문화예술회관

관람연령 8세이상

관람시간 80분

예매 및 문의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
<http://ucac.ulsan.go.kr>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